

시라네산잔

눈에 덮힌 세 봉우리

기타다케산은 시라네산잔(Three White-Topped Mountains)로 불리던 산들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이어 남쪽에 있는 남은 2개 봉우리는 마노타케산(일본어로 ‘산들 사이’라는 뜻)과 노토리다케산(“farm-bird mountain”)입니다. 기타다케산(해발 3,193m)과 아이노다케산(해발 3,190m)은 일본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노토리다케산의 높이도 3,000m 가 넘습니다.

노토리다케산이라는 이름은 봄에 눈이 녹은 후에도 동쪽 산등성이에 새 모양으로 남은 눈웅덩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눈웅덩이가 나타나면 농가에서는 그해의 모내기를 시작할 시기임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노다케산에는 고도가 높은 위치에 원형극장과 같은 웅덩이 2개, 동쪽 산등성이의 웅덩이는 호로자와 카르, 북동쪽 웅덩이는 기타자와 카르가 있습니다. 산정상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본래 산정상이 붕괴하기 전에 이 산이 현재보다 수십 미터는 높았다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히로가와라에서 출발해서 나라다로 끝나는 시라네산잔의 전체 루트는 속도를 내면 2일, 여유롭게는 3일 만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